

민선 5기 1년

정종득 목포시장

교육·복지·문화 '사람 중심 행정'

정종득 목포시장은 평소 부지런하고 발품을 많이 팔기로 정평이 나왔다. 틈만 나면 집무실을 벗어나 토·일요일도 없이 현장을 누빈다. 임기 7년차에 접어들면서도 그의 행보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주민 소통·화합 최우선

전면 무상급식에 총력

원도심 활성화 매진

정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며 "뭔가를 새로 짓고 세우고 만드는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행정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사람'을 중심에 세우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화려한 성과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 목표인 '가장 살기 좋은 목포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자신에게 남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은 '소통과 화합'이다. 정 시장은 1년 전 민선 5기 취임 기자회견에서 '소통하는 시장, 화합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소통'과 동시에 뛰어난 분야는 '무상급식' 문제다. 올해 초등 무상급식에만 105억(교육청 43억 포함)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특히 임기 내 중·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피력했다. 무엇보다 교육종합발전 5개년 계획으로 교육 관련 예산을 전체 대비 10% 가까이 늘린 것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장과도 견줄 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정 시장은 처음부터 전면 무상급식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앞

으로 '친환경'에 방점을 둔 급식에도 힘을 쓸 생각이다. 친환경 급식센터 건립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정 시장의 소신 역시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로 해석된다.

또 목포는 전체 면적이 채 50km가 안 돼 변변한 산업단지 하나가 없다. 기업이 오고 싶어도 용지가 없어 오지 못하는 현실에 늘 가슴 아파했다. 지금도 정 시장은 시민들에게 빛을 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회고할 정도다. 취임 초부터 대

양 산업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국내 도급순위 20위 안에 드는 굴지의 건설사와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찌 보면 민선 5기 1주년의 최대 성과중의 성과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항구도시목포의 경쟁력 제고는 해양 관광에 있다는 소신아래 강경 드라이브를 권 결과 그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 최초 추추는 바다 분수가 대표적 사례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연말 목포대교 준공과 맞물려 북항권이 원도심의 미래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원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남포동 31층 상권이 발달하고 대성동 택지개발사업도 최근 청신호가 켜졌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둔 데는 발 빠르게 대처한 정 시장의 경협이 숨어있다. 반신반의하던 시민들도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지난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 시장은 그동안 이론 것이 적지 않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어 앞으로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을 하 나씩 마무리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성계 활용, 해양 오염도 평가한다

서해수산연, 연안 퇴적물에 사망률 분석 기법 개발

연안 어장의 환경오염도 측정에 성계가 활용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연구소 해양생태 위험평가센터는 성계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 연안 양식어장의 퇴적 추출물에 넣은 후 수정체의 기형 및 사망률을 분석해 오염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

서해수산연연구소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7개 생물군, 13종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 생물반응에 관한 시험 방법을 개발했고, 이런 생물반응을 이용해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양식어장 환경의 오염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경남 마산항, 청초항 및 포항 신항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정상적인

유생(幼生)이 10%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나 오염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식어장의 경우 지난해 내측은 5%, 천수만 내측은 20% 내외 수준의 정상 유생 발생률을 보여 오염이 심했으며, 가로림만·천수만 외측은 50% 이상, 구룡포·후포 등 동해안은 80%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다.

기존 오염 환경평가는 대부분이 화학적 분석에 의한 오염원의 물질농도

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해수산연연구소 황윤기 박사는 "생물반응을 이용한 실험은 각종 유해물질에 의한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파악뿐만 아니라 어장피해에 의한 어장 환경평가와 복원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연안에 서식하는 여러 가지 수산생물을 이용한 환경평가 방법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

신안 시금치 수프·후레이크 가공식품 출시

명품 시금치인 '신안 섬초'를 이제 수프와 스낵 등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됐다.

신안 비금, 도초농협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신안 섬초조합은 섬초를 가공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시금치 수프와 후레이크, 어린이 간식용 스낵 등 3종 세트를 만들어 지난 1일 출시했다.

조합은 비금면 덕산리에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53억 원을 투입, 가공·유통종합센터를 건립해 맛과 향이 좋은 섬초를 소포장으로 규격을 다양화했고 세척, 분말·증숙 냉동 처리 시스템을 갖췄다.

/서부취재본부=조인남기자 wncho@



완도 명품 멸치 만들기

완도어민들이 갯 잡아 올린 멸치를 삶고 있다. 완도산 멸치는 해풍에 말리기 때문에 빛깔이 곱고 맛이 뛰어나 다른 지역 멸치보다 10~20%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연합뉴스

목포경찰,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경연대회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 28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형사과와 파출소 등 11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응급처치 교육 및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현장 근무자들의

발견 상황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산정파출소 이덕희 경사 등 4명이 목포시 산정농공단지내에서 운동중 탈수에 의한 심정지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초동조치와 정확한 응급조치로 1위를 차지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전 북

전주 팔복동 첨단산업 요충지로 변신

조성완료 3년만에 6개 연구기관·100개 기업 입주

전기 전자·탄소밸리 등 구축 지역 경제 발전 견인

전주 팔복동 지역이 첨단산업 핵심 요충지로 변모하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팔복동 5개 단지 247만4000㎡에 6개 연구기관과 100개 기업이 입주했고 1600명의 종사자가 상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진벽해(桑田碧海)는 지난 2001년 6월 전주시와 전북대간 '전주 첨단기술택지' 조성협약에 따라 옛 기능대학 부지에 전북대 TIC 및 12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4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2008년에 마무리된 전주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당초 지역산업 연구의 불모지였던 전북지역에 최초로 지자체 중심의 R&D역량을 키우는 발원지 역할을 했다. 조성이 완료된지 불과 3년이 지난

현재 입주업체가 (주)테크 등 55개 업체, 종업원수 594명, 연매출액 624억원의 성과를 보이는 벤처기업의 포스트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산업을 총괄하는 전북 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전주 나노집적센터 ▲전주 기계탄소기술원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센터 ▲국방벤처지원센터 ▲생산기술연구원 전북센터 등 지역 혁신센터와 국가 미래산업을 연구하는 R&D기관이 함께 들어서 지역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역량과 기업 성장 지원 시스템은 제지, 섬유산업으로 일컬어지던 전주지역의 산업구조를 개선해 전기전자, 조립 금속 등 첨단

산업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변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탄생한 전주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개발은 주변에 공업지역으로 묶여있던 팔복동, 여의동 지역의 개발이 가능하게 돼 총 233만9000㎡에 대해 1:2:3단계로 구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충청권·강원권과 더불어 수도권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선호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달 14일 (주)효성과 1조 2000억원이라는 1300년 전주시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투자결정을 발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문명수 부시장은 "국책사업인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밸리' 구축을 시작으로 팔복동 산업단지는 미래 전주발전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각광

영화 스태프들이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실내 스튜디오에서 영화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는 올 상반기 동안 실내 스튜디오 114일·야외 세트장 86일 등 총 200일을 가동, 영화 5편을 제작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주시 제공)

새만금경제청 군산으로 청사 이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이 새만금지구의 효율적인 투자유지와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난 1일 군산시로 청사를 이전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새만금경제청 3기 가운데 노후된 2기를 올 하반기에 4억 원 정도를 투입해 현대식 기기로 교체할 계획이다.

새만금 전시관 건물 일부를 임대했다.

새만금경제청 이명노 청장은 "청사가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 분야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입주 기업에 윈윈 플랫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승석기자 nogusu@

단 신

전주 3대 문화관 전주문화재단서 위탁 운영

전주시는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관문화관 등 3대 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경연대회는 현장 근무자들의

화자산인 소리와 부채, 완관본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체험·교육하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비용 절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들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아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35사단, 道內 대학과 장병 공부지원 협약

육군 35사단은 전북도, 전북대, 원광대와 협약을 해 장병이 여가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재학생 입대 장병에게 인터넷 수강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북대는 30%, 원광대는 50%를 각각 깎아준다.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일

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인터넷 강의 등을 들으며 학점도 인정받는다. 전북도는 35사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주고 군 장병이 읽을 책 등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협약식은 4일 사단 사령부에서 열렸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군산 산·학·관 협동 자동차 인력 양성

군산지역의 기관과 대학, 기업체가 자동차 기계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동신 군산시장과 이송우 군장대학 총장, 신오식 무산인프라코어 부사장 등은 지난 1일 산업기능인력 수급 협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협동 체계구축과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교육과정 제시와 양성된 전문 인력 채용을 담당하고, 군장대학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운영을, 군산시는 기업 지원 정보와 고용지원을 포함한 행정 지원업무 맡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승석기자 nogusu@

김제경찰서, 수록골 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

김제경찰서(서장 조영식)와 김제 수록골 정보화마을(surokgol.invil.org)은 지난 30일 상호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 행사를 체결했다.

이날 결연에 따라 김제경찰서와 수록골 정보화마을은 특산물 할인판매, 농촌체험 등 농촌일손돕기 및 특산물 구입 및 홍보, 체험학습 참여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을 여름엔 남원서 농촌체험

홍부골 등 3개권역서 운영

남원시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농촌마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시민 모시기에 나섰다.

남원시는 "아영면 홍부골과 이백면 요천, 보절면 천황봉 등 3개 권역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아영면 홍부골 권역(www.heungbugol.com)은 '산과 우애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홍부골'을 주제로 감자 캐기와 감자 삼구이, 감자 외박수레 고랑뛰기, 포도 봉지싸우기, 고무신 먹감기 등 1박2일 코스 프로그램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남원 승화원·승화당 장사 시설 내달 준공

남원시 장사시설이 오는 8월 준공된다. 3일 남원시에 따르면 광치동에 있는 승화원의 증축과 승화당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한 이 사업은 남원시 광치동 69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지상 2층(879.21㎡) 규모의 승화당과 승화원(250.26㎡)을 리모델링해 안치기수를 1만 1504기까지 늘린다. 또한 제사실 3개소와 내부 인테리어, 조경, 주차시설도 확장된다. 시는 현재 승화원 화장물을 산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 판매장을 수시로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